

設問紙 問項에서의 體質別 應答差異 比較分析研究

박은경* · 박성식*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based on Sasang institution's differences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I)

Park Eun-kyung · Park Seong-sik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The problem lies in Sasang-constitution-medicine is a subjectiveness of diagnosis that the result of diagnosis varies according to the doctors. In order to supplement to this demerit, multiple approach has done to diagnose objectively.

This study has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dered as a basic data to indentify constitution.

By analysing the tendency of the respondents who has defined constitution by clinical diagnosis and comparing of their answers, the result of their constitution analysis by our questionnaire were re-examed. The answer of each question to each constitution were tested how it is relevent to a scale of a constitution.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there is limitation to find out constitution by the questionnaire we used, one we hope that suitable questionnaire will be developed for the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 :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Tendency of the respondent, Constitution classification.

초 록

사상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체질의 진단 자체가 진단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체질 진단 결과의 주관성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체질을 감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설문지 이용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임상적 진단을 거쳐 체질이 결정된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에서 어떠한 응답 성향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설문지를 통한 체질 분석의 결과를 다시금 검토하고, 각 문항에서 체질별 응답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박은경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 031-710-3723
E-mail) sasang3@yahoo.co.kr

성향을 분석하여 한 체질의 분류 척도로 채택된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설문지로서 체질을 판별하는 것의 한계를 확인하였고, 추후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새로운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중심단어 : 설문지, 사상체질, 체질진단, 응답경향

I. 緒論

동무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¹⁾에서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인 체질의 차이를 논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병증 및 치료방법이 상이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마는 容貌詞氣, 性質才幹, 恒心, 心慾, 生理의인 證(完實無病), 病理的인 證(大病, 重病, 險證)등을 제시²⁾하였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한 체질진단의 방법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이 강조되므로 사상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나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어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기에 기초를 둔 체질진단의 객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방법^{3,7)}, 유전자 분석법^{8,9)}, 면역혈청학적 방법¹⁰⁾, EAV를 이용한 방법^{11,12)}, 지문 분석법¹³⁾, 맥진을 이용한 방법¹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며, 『동의수세보원』의 내용에 얼마나 충실하는지의 측면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의수세보원』을 근거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을 포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졌고,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설문지 중에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QSCCI을 제외¹⁵⁾하고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16,17)}와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18,19)}의 두 종류의 설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였다. 이것들은 일차적인 체질의 변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문항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문항의 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이해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도로써 이번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고, 이번 연구는 그 중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임상적 진단을 통해 체질이 결정된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에서 어떠한 응답 성향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설문지를 통한 체질분석의 결과를 다시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한 한 체질의 분류 척도로 채택된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체질 감별의 수단으로서의 설문지를 재평가한 결과 몇가지 지론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현재 체질진단시 일차적 평가로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의 진단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지 재평가 작업이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동국대학교 부속 분당 한방병원의 외래환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¹⁷⁾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남녀별, 연령별 분포

	≤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합계
남자	2 (1.4%)	109 (75.1%)	26 (17.9%)	3 (2.1%)	5 (3.5%)	145 (100.0%)
여자	1 (1.8%)	41 (74.6%)	5 (9.1%)	5 (9.1%)	3 (5.4%)	55 (100.0%)

2. 체질진단방법

체질진단은 조사대상자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性, 生理的 및 病理的 證 등 이체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사상의학 전공자가 여러 항목을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최종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체질별, 남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체질별, 남녀별 분포. n : 명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남자	60(30.0%)	45(22.5%)	40(20.0%)	145(72.5%)
여자	17(8.5%)	25(12.5%)	13(6.5%)	55(27.5%)
합계	77(38.5%)	70(35.0%)	53(26.5%)	200(100.0%)

3.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200명의 체질을 사상의학 전공자에 의해 먼저 분류한 후 조사대상자에게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16, 17)}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각 설문 문항에서 체질별 응답성향을 분석하여 한 체질의 분류 척도로 채택된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체질 판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설문지에서의 체질 결과는 최종 체질에 참고로 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性, 生理的 및 病理的 證 등 이체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사상의학 전공자가 여러 항목을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최종 분류하였음을 거듭 밝힌다.

4. 통계

설문지 문항의 답안은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질문과 체질간의 연관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와 P값에 의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그 중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질문을 재분석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한 세부항목과 각 체질간의 개별 연관성의 정도를 검증하였다(유의수준 $P < 0.05$).

III. 結果

1.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문항별 체질분포의 결과

설문지의 질문 중 사지선다형의 질문은 그 세부항목이 ①은 태음인 문항, ②는 소음인 문항, ③은 소양인 문항, ④는 태양인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18-21번까지의 문항은 18번은 태음인 문항, 19번은 소음인 문항, 20번은 소양인 문항, 21번은 태양인 문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만 16번과 17번은 사지선다형이지만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므로 세부문항을 그렇다(O), 아니다(X), 보통이다(△)로 구분하는 18~21번까지의 문항과 같이 취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총 76문항을 체질 변별력에 있어 타당성 및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문항

총 76문항 중 25문항이 체질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이 25문항을 각각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 세 체질 모두 한 세부문항으로 치우치게 응답하여 체질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

① 세 체질 모두 'O'라고 대부분 응답

번호	설문내용	응답률	p값
16-1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아프다.	62.0%	0.222
18-6	고집이 센 편이다.	49.5%	0.148
19-11	남이 자기일에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55.5%	0.250
21-13	자존심이 강하다.	66.0%	0.735
21-14	정직하고 충실한 편이다.	59.5%	0.718

② 세 체질 모두 'X'라고 대부분 응답

번호	설문내용	응답률	p값
16-3	건망증이 있다.	68.5%	0.688
17-3	변비, 건망증, 구역감, 코피.	76.5%	0.311
17-4	요통, 하지무력, 목에 이상감각.	78.5%	0.068
18-3	운동보다 오락을 좋아한다.	42.0%	0.365
18-10	교만하다.	52.5%	0.320
20-11	사치를 좋아한다.	54.5%	0.203
21-9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55.5%	0.529

③ 세 체질 모두 '△'라고 대부분 응답

번호	설문내용	응답률	p값
19-3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가 강한 편이다.	48.0%	0.084
21-4	머리가 명석한 편이다.	57.0%	0.087

④ 기타

번호	설문내용	분석결과	응답률	p값
7	당신 얼굴색은	세부문항 ①, ②에 대부분 응답	60.0%	0.059
18-7	인내심이 많다.	세부문항 'O'와 '△'에 대부분 응답 (긍정적반응)	89.0%	0.132
18-11	욕심이 많다.	세부문항 'O'와 '△'에 대부분 응답 (긍정적반응)	80.5%	0.120
20-12	과장을 잘한다.	세부문항 'X'와 '△'에 대부분 응답 (부정적반응)	84.5%	0.051

2) 각 세부문항에 고루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문항

번호	설문내용	p값
18-12	노력형이다.	0.089
18-13	이해와 타산을 많이 따진다.	0.819
19-8	생각하는 것이 조직적이다.	0.436
19-13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다.	0.347
20-10	싫증을 잘 내고 체념을 잘한다.	0.415
21-8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제할 수 없이 화가 난다.	0.536
21-10	계획성이 적다.	0.359

그 외 '교만하다', '사치를 좋아한다' 등의 부정적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X'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인간 심리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질문의 내용을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보인다.

또,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가 강한 편이다', '머리가 명석한 편이다' 등의 문항에서는 세 체질모두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들 질문에 대한 뚜렷한 반응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2)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문항

1) 당신의 체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③에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 일 확률이 많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①	28(36.4%)	9(12.9%)	6(11.3%)	43
1-②	15(19.5%)	39(55.7%)	11(20.8%)	65
1-③	11(14.3%)	9(12.9%)	26(49.1%)	46
1-④	3(3.9%)	1(1.4%)	3(5.7%)	7
무응답	20(26.0%)	12(17.1%)	7(13.2%)	39

2)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③에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 일 확률이 많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①	53(68.8%)	6(8.6%)	7(13.2%)	66
2-②	1(1.3%)	28(40.0%)	14(26.4%)	43
2-③	11(14.3%)	17(24.3%)	25(47.2%)	53
2-④	3(1.3%)	12(17.1%)	3(5.7%)	16
무응답	11(14.3%)	7(10.0%)	4(7.5%)	22

3) 당신의 몸에서 외관상 가장 발달된 부분은?

이 질문에 태음인이 ①에 응답하는 경우는 예상보다 많지 않아 ①을 태음인 감별 문항으로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인은 예상대로 ②에 많은 수가 응답하였고, 소양인은 ③

에 많이 응답하여 태음인과 차이를 보였다.

특정적으로 이 문항은 ②에는 음인이, ③에는 양인이 많이 응답하여 음인과 양인을 감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①	20(26.0%)	5(7.1%)	8(15.1%)	33
3-②	24(31.2%)	40(57.1%)	5(9.4%)	69
3-③	12(15.6%)	8(11.4%)	24(45.3%)	44
3-④	6(7.8%)	4(5.7%)	5(9.4%)	15
무응답	15(19.5%)	13(18.6%)	11(20.8%)	39

4)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③에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일 확률이 많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이 문항은 체질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4-①	39(50.6%)	5(7.1%)	5(9.4%)	49
4-②	4(5.2%)	34(48.6%)	4(7.5%)	42
4-③	15(19.5%)	18(25.7%)	35(66.0%)	68
4-④	8(10.4%)	6(8.6%)	6(11.3%)	20
무응답	11(14.3%)	7(10.0%)	3(5.7%)	21

5)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③에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일 확률이 많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이 문항은 체질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①	35(45.5%)	8(11.4%)	7(13.2%)	50
5-②	10(13.0%)	44(62.9%)	10(18.9%)	64
5-③	19(24.7%)	13(18.6%)	33(62.3%)	65
무응답	13(16.9%)	5(7.1%)	3(5.7%)	21

6) 당신의 얼굴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 문항은 태음인의 대다수인 41명이 ①로 응답하였고, 소음인의 43명이 ②로 응답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의 응답에 특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으나,

소양인은 한 문항으로 치우치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③을 소양인 문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①	41(53.2%)	10(14.3%)	18(34.0%)	69
6-②	15(19.5%)	43(61.4%)	11(20.8%)	69
6-③	4(5.2%)	11(15.7%)	14(26.4%)	29
6-④	7(9.1%)	2(2.9%)	4(7.5%)	13
무응답	10(13.0%)	4(5.7%)	6(11.3%)	20

8) 당신의 얼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았다. 한편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③에 많이 응답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③을 소양인 문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①	43(55.8%)	16(22.9%)	6(11.3%)	65
8-②	14(18.2%)	31(44.3%)	12(22.6%)	57
8-③	5(6.5%)	6(8.6%)	15(28.3%)	26
8-④	7(9.1%)	8(11.4%)	10(18.9%)	25
무응답	8(10.4%)	9(12.9%)	10(18.9%)	27

9) 당신의 눈빛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소양인은 태음인에 비해 ①에 응답하는율이 낮으며, 소음인에 비해서는 ④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타 체질과 감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음인의 항목으로 설정된 ①은 태음인의 20.8%만이 선택하여 태음인 항목으로 지정됨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고, 소음인 항목으로 채택된 ②는 소음인이 많이 응답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분석결과 타 체질에 비해 통계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9-①	16(20.8%)	12(17.1%)	5(9.4%)	33
9-②	39(50.6%)	34(48.6%)	20(37.7%)	93
9-③	10(13.0%)	16(22.9%)	18(34.0%)	44
9-④	7(9.1%)	1(1.4%)	7(13.2%)	15
무응답	5(6.5%)	7(10.0%)	3(5.7%)	15

10) 당신의 가슴은?

이상의 질문에 ①에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②에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일 확률이 많음을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소양인은 ③, ④에 많이 응답하였으나 분석결과 타 체질에 비해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0-①	51(66.2%)	3(4.3%)	5(9.4%)	59
10-②	1(1.3%)	45(54.3%)	4(7.5%)	50
10-③	12(15.6%)	8(11.4%)	22(41.5%)	42
10-④	10(13.0%)	9(12.9%)	17(32.1%)	36
무응답	3(3.9%)	5(7.1%)	5(9.4%)	13

11) 당신의 손과 발은?

이 문항으로는 태음인을 가려낼 수는 없으며, 소음인과 소양인은 모두 ②에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체질의 변별력은 없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①	15(19.5%)	10(14.3%)	6(11.3%)	31
11-②	8(10.4%)	25(35.7%)	17(32.1%)	50
11-③	44(57.1%)	24(34.3%)	22(41.5%)	90
무응답	10(13.0%)	11(15.7%)	8(15.1%)	29

12) 당신의 피부는?

이 문항은 태음인은 ①에 많은 수가 응답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타 체질에 비해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문항으로는 소음인과 소양인은 특징적인 차이점은 밝힐 수 없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2-①	41(53.2%)	6(8.6%)	11(20.8%)	58
12-②	19(24.7%)	28(40.0%)	14(26.4%)	61
12-③	4(5.2%)	12(17.1%)	13(24.5%)	29
12-④	6(7.8%)	18(25.7%)	8(15.1%)	32
무응답	7(9.1%)	6(8.6%)	7(13.2%)	20

13) 당신의 음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음성이 탁하다. ② 조용한 편이다. ③ 카랑 카랑하다.

이것은 소음인을 감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즉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②에 많은 수의 소음인이 응답하여 태음인 및 소양인과 차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양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3-①	25(32.5%)	5(7.1%)	9(17.0%)	39
13-②	30(39.0%)	49(70.0%)	19(35.8%)	98
13-③	16(20.8%)	11(15.7%)	18(34.0%)	45
무응답	6(7.8%)	5(7.1%)	7(23.2%)	18

14) 말을 할 때 평소속관은?

이 문항에서는 소양인이 ①에 응답하는 비율이 적고, 소음인이 ③에 응답하는 비율이 적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①을 태음인 문항, ②를 소음인 문항, ③을 소양인 문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질문이었다. 세 가지 체질 모두에서 ②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②의 항목으로 체질을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4-①	13(16.9%)	11(15.7%)	2(3.8%)	26
14-②	46(59.7%)	53(75.7%)	29(54.7%)	128
14-③	12(15.6%)	2(2.9%)	14(26.4%)	28
무응답	6(7.8%)	4(5.7%)	8(15.1%)	18

15) 당신의 대변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②에 많은 수의 소음인이 응답하여 체질별 차이를 보였고, 소양인은 ③에 비교적 많이 응답하였으나, 태음인의 응답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태음인이 ④에 응답하는 것도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그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5-①	18(23.4%)	8(11.4%)	10(18.9%)	36
15-②	19(24.7%)	43(61.4%)	21(39.6%)	83
15-③	7(9.1%)	2(2.9%)	10(18.9%)	19
15-④	22(28.6%)	7(10.0%)	8(15.1%)	37
무응답	11(14.3%)	10(14.3%)	4(7.5%)	25

16-2) 한숨을 잘 쉰다. 팔다리가 떨린다.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많은 수의 소음인이 응답하여 타 체질과 차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양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6-2) "O"	35(45.5%)	47(67.1%)	19(35.8%)	101
"X"	42(54.5%)	23(32.9%)	34(64.2%)	99

16-4)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듯 하다.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지 못한다.

소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X"에 많은 수의 태음인이 응답하여 타 체질과 차이를 보였고, 소음인과 소양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6-4) "O"	23(29.9%)	34(48.6%)	27(50.9%)	84
"X"	54(70.1%)	36(51.4%)	26(49.1%)	116

17-1) 가슴이 뻐다. 김기, 변비, 눈병, 설사, 갈증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X"에 많은 수의 소음인이 응답하여 타 체질과 차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양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7-1) "O"	41(53.2%)	23(32.9%)	27(50.9%)	91
"X"	36(46.8%)	47(67.1%)	26(49.1%)	109

17-2) 소화이상, 신경예민, 설사, 요통, 팔다리에 힘이 없다.

이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O"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체질간 응답 분포의 분석에서 유의성을 찾을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7-2) "O"	27(35.1%)	50(71.4%)	25(47.2%)	102
"X"	50(64.9%)	20(28.6%)	28(52.8%)	98

18-1) 과묵한 편이다.

태음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X"에 많은 수의 소양인이 응답하였고, 5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타 체질과 큰 차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음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1) "O"	33(42.9%)	24(34.3%)	5(9.4%)	62
"△"	32(41.6%)	31(44.3%)	22(41.5%)	85
"X"	12(15.6%)	15(21.4%)	26(49.1%)	53

18-2) 매사에 신중하다.

소양인이 태음인이나 소음인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수가 적어 타 체질과 차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음인의 응답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2) "O"	36(46.8%)	34(48.6%)	11(20.8%)	81
"△"	31(40.3%)	29(41.4%)	29(54.7%)	89
"X"	10(13.0%)	7(10.0%)	13(24.5%)	30

18-4) 밖의 일보다 집안 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시한다.

이 문항에서는 소양인이 태음인과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 체질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4) "O"	32(41.6%)	44(62.9%)	10(17.5%)	86
"△"	28(36.4%)	19(27.1%)	26(49.1%)	73
"X"	17(22.1%)	7(10.0%)	17(32.1%)	41

18-5)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는 편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O"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소음인은 소양인과의 비교에서 "X"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통계적 검증상 유의성있게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5)“O”	31(15.5%)	13(18.6%)	20(37.7%)	64
“△”	27(35.1%)	33(47.1%)	25(47.2%)	85
“X”	19(24.7%)	24(34.3%)	8(15.1%)	51

18-8) 매사에 귀추를 보고 난 후 자신에게 이름
다고 생각될 경우 행동에 옮긴다.

이 문항에서는 소양인의 응답이 특징적이었다.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으로 체질내에서 49.1%를 차지한 반면, 태음
인은 18명(23.4%), 소음인은 16명(22.9%)에 불과하
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8)“O”	24(31.2%)	26(37.1%)	10(18.9%)	60
“△”	35(45.5%)	28(40.0%)	17(32.1%)	80
“X”	18(23.4%)	16(22.9%)	26(49.1%)	60

18-9) 평소 접잡은 편이나 음흉한 면도 있다.

이 문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유의수준 5%
내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어, 태음인보
다 소양인이 “X”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9)“O”	41(53.2%)	29(41.4%)	18(34.0%)	88
“△”	24(31.2%)	28(40.0%)	15(28.3%)	67
“X”	12(15.6%)	13(18.6%)	20(37.7%)	45

19-1) 사교적이다.

이 질문에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
고 8명(11.4%)만이 응답하여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
고, 소양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에 비해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한 수가 6명(11.3%)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1)“O”	24(31.2%)	8(11.4%)	32(60.4%)	64
“△”	32(41.6%)	24(34.3%)	15(28.3%)	71
“X”	21(27.3%)	38(54.3%)	6(11.3%)	65

19-2) 꼼꼼한 편이다.

이 문항에서는 태음인에 비해 소음인이 꼼꼼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자신이 꼼꼼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사람이 태음인은 21명(27.3%)인 반면, 소음인은
8명(11.4%)에 불과하여 체질간 응답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태음인과 소음인간의 응답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소양인의 응답성향은 뚜렷한 바가
없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2)“O”	21(27.3%)	35(50.0%)	18(34.0%)	74
“△”	35(45.5%)	27(38.6%)	21(39.6%)	83
“X”	21(27.3%)	8(11.4%)	14(26.4%)	43

19-4)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태음인과 소음인은 이 문항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고, 소양인의 60.4%인 32명이 “그렇지 않
다”라고 응답하여 음인에 비해 활동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4)“O”	30(39.0%)	28(40.0%)	11(20.8%)	69
“△”	24(31.2%)	26(37.1%)	10(18.9%)	60
“X”	23(29.9%)	16(22.9%)	32(60.4%)	71

19-5) 남성적인 면에 비하여 여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많은 수가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태음인의 21명(27.3%)과 소양인의 10
명(1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소음인은
45명(64.3%)가 응답하여 체질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5)“O”	21(27.3%)	45(64.3%)	10(18.9%)	76
“△”	30(39.0%)	18(25.7%)	20(37.7%)	68
“X”	26(33.8%)	7(10.0%)	23(43.4%)	56

19-6) 수줍음이 많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다.

소음인이 48명(68.6%)으로 많은 수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체질간 차이를 보인 문항이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6)“O”	19(24.7%)	48(68.6%)	8(15.1%)	75
“△”	36(46.8%)	18(25.7%)	20(37.7%)	74
“X”	22(28.6%)	4(5.7%)	25(47.2%)	51

19-7) 판단력이 빠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고 22명(41.5%)가 응답하였고, 7명(13.2%)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특징적인 응답 차이를 밝힐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7)“O”	18(23.4%)	11(15.7%)	22(41.5%)	51
“△”	35(45.5%)	32(45.7%)	24(45.3%)	91
“X”	24(31.2%)	27(38.6%)	7(13.2%)	58

19-9) 침착하다.

소양인은 7명(13.2%)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태음인의 25명(32.5%), 소음인의 27명(38.6%)에 비해 응답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9)“O”	25(32.5%)	27(38.6%)	7(13.2%)	59
“△”	38(49.4%)	32(45.7%)	30(56.6%)	100
“X”	14(18.2%)	11(15.7%)	16(30.2%)	41

19-10) 한번 감정이 상하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세 체질 중 소음인이 38명(54.3%)로 가장 많은 수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태음인과 소양인간에는 특징적인 응답의 차이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10)“O”	27(35.1%)	38(54.3%)	19(35.8%)	84
“△”	28(36.4%)	23(32.9%)	13(24.5%)	64
“X”	22(28.6%)	9(12.9%)	21(39.6%)	52

19-12) 내성적이다.

이 문항은 세 체질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음인은 타 체질보다 “그렇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특징적이었고, 태음인과 소양인의 비교에서는 소양인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9.4%)에 불과해 체질간 차이를 밝힐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12)“O”	32(41.6%)	54(77.1%)	5(9.4%)	91
“△”	26(33.8%)	12(17.1%)	19(35.8%)	57
“X”	19(24.7%)	4(5.7%)	29(54.7%)	52

20-1) 매사에 열성적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체질간 차이를 나타내었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이 문항에서 체질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1)“O”	20(26.0%)	10(14.3%)	22(41.5%)	52
“△”	40(51.9%)	29(41.4%)	25(47.2%)	94
“X”	17(22.1%)	31(44.3%)	6(11.3%)	54

20-2) 솔직담백하다.

이 문항을 통해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솔직담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명(67.9%)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타 체질내에서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2)“O”	34(44.2%)	21(30.0%)	36(67.9%)	91
“△”	32(41.6%)	38(54.3%)	13(24.5%)	83
“X”	11(14.3%)	11(15.7%)	4(7.5%)	26

20-3)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다.

이 문항은 소양인의 반응이 특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7명(69.8%)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소양인은 6명(11.3%)에 불과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3)“O”	34(44.2%)	29(41.4%)	37(69.8%)	100
“△”	29(37.7%)	24(34.3%)	10(18.9%)	63
“X”	14(18.2%)	17(24.3%)	6(11.3%)	37

20-4) 외부일에 치중하여 나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이 문항을 통해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4)“O”	11(14.3%)	7(10.0%)	21(39.6%)	39
“△”	24(31.2%)	13(18.6%)	16(30.2%)	53
“X”	42(54.5%)	50(71.4%)	16(30.2%)	108

20-5) 봉사정신이 많다.

이 문항을 통해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런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명(52.8%)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5)“O”	19(24.7%)	12(17.1%)	28(52.8%)	59
“△”	35(45.5%)	34(48.6%)	18(34.0%)	87
“X”	23(29.9%)	24(34.3%)	7(13.2%)	54

20-6) 사무에 밝고 일처리가 신속하다.

이 문항을 통해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런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명(54.7%)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소양인은 4명(7.5%)이었으나, 태음인의 27명(35.1%)과 소음인의 32명(45.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소양인의 반응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6)“O”	16(20.8%)	13(18.6%)	29(54.7%)	58
“△”	34(44.2%)	25(35.7%)	20(37.7%)	79
“X”	27(35.1%)	32(45.7%)	4(7.5%)	63

20-7) 의협심이 강하다.

소음인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11명으로 세 체질에 비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고, 소양인의 7명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소양

인이 의협심이 강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7)“O”	26(33.8%)	11(15.7%)	24(45.3%)	61
“△”	28(36.4%)	32(45.7%)	22(41.5%)	82
“X”	23(29.9%)	27(38.6%)	7(13.2%)	57

20-8) 남의 잘 잘못을 따지기 좋아한다.

이 문항을 통해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런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이 문항에서 특징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8)“O”	12(15.6%)	14(20.0%)	21(39.6%)	47
“△”	29(37.7%)	26(37.1%)	23(43.4%)	78
“X”	36(46.8%)	0(42.9%)	9(17.0%)	75

20-9) 성격이 급한 편이다.

소양인의 37명(69.8%)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소양인은 2명(3.8%)이었으나, 태음인과 소음인은 소양인의 반응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9)“O”	34(44.2%)	20(28.6%)	37(69.8%)	91
“△”	31(40.3%)	26(37.1%)	14(26.4%)	72
“X”	12(15.6%)	24(34.2%)	2(3.8%)	37

20-13) 행동이 겸손한 편이다.

태음인과 소음인은 이 문항에서 특징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13)“O”	10(13.0%)	8(11.4%)	16(30.2%)	34
“△”	31(40.3%)	26(37.1%)	23(43.4%)	80
“X”	36(46.8%)	36(51.4%)	14(26.4%)	86

21-1) 모든일에 거침없이 행동한다.

이 문항은 소음인의 반응이 타 체질에 비해 특징

적이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소음인 중 3명(4.3%)에 불과하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75.7%)로 태음인의 39명(50.6%), 소양인의 16명(30.2%)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1)“O”	12(15.6%)	3(4.3%)	13(24.5%)	28
“△”	26(33.8%)	14(20.0%)	24(45.3%)	64
“X”	39(50.6%)	53(75.7%)	16(30.2%)	108

21-2) 남을 공격하기를 잘한다.

소양인이 “그렇다”고 응답은 수가 10명(18.9%)으로 세 체질 중 가장 많았다. 태음인과 소음인과의 체질간 응답 차이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2)“O”	6(7.8%)	2(2.9%)	10(18.9%)	18
“△”	19(24.7%)	13(18.6%)	18(34.0%)	50
“X”	52(67.5%)	55(78.6%)	25(47.2%)	132

21-3) 여성적인 면에 비하여 남성적인 면이 많다.

이 문항은 세 체질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음인은 6명(8.6%)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가장 강하게 부정한 체질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3)“O”	20(26.0%)	6(8.6%)	12(22.6%)	38
“△”	23(29.9%)	14(20.0%)	28(52.8%)	65
“X”	34(44.2%)	50(71.4%)	13(24.5%)	97

21-5) 창의력이 있다.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많은 반면, 소음인은 그렇지 않은 문항에 많이 응답하여 체질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체질간 응답 차이는 검증상 인정되지 않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5)“O”	21(27.3%)	12(17.1%)	22(41.5%)	55
“△”	35(45.5%)	32(45.7%)	22(41.5%)	89
“X”	21(27.3%)	26(37.1%)	9(17.0%)	56

21-6) 적극적이다.

소양인이 긍정적인 응답성향을 보인 반면, 소음인은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체질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6)“O”	25(32.5%)	5(7.1%)	27(50.9%)	57
“△”	32(41.6%)	31(44.3%)	22(41.5%)	85
“X”	20(26.0%)	34(48.6%)	4(7.5%)	58

21-7) 과단성이 있다.

소음인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는 9명(12.9%)에 불과하여 소양인과의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체질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7)“O”	17(22.1%)	9(12.9%)	18(34.0%)	44
“△”	32(41.6%)	24(34.3%)	19(35.8%)	75
“X”	28(36.4%)	37(52.9%)	16(30.2%)	81

21-11) 대답하지 못하다.

소음인의 41명(58.6%)이 자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7명(10.0%)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특징적인 응답 분포를 보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11)“O”	24(31.2%)	41(58.6%)	9(17.0%)	74
“△”	32(41.6%)	22(31.4%)	24(45.3%)	78
“X”	21(27.3%)	7(10.0%)	20(37.7%)	48

21-12) 영웅성이 많다.

소음인은 1명(1.4%)만이 자신이 영웅심이 많다고 생각하여 타 체질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빈도를 보였고, 56명(80.0%)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태음인과 소양인간의 특징적인 응답 차이는 이 문항에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1-12)“O”	13(16.9%)	1(1.4%)	14(26.4%)	28
“△”	24(31.2%)	13(18.6%)	17(32.1%)	54
“X”	40(51.9%)	56(80.0%)	22(41.5%)	118

표 3-1. 태음, 소음, 소양 그룹간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문항들

번호	설문내용	(1)	(2)	(3)	(4)
1	당신의 체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2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3	당신의 몸에서 외관상 가장 발달된 부분은	○			
4	당신의 걸음 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5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6	당신의 얼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7	당신 얼굴의 색깔은		체질변별력없음		
8	당신의 얼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9	당신의 눈빛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0	당신의 가슴은	○			
11	당신의 손과 발은		○		○
12	당신의 피부는	○			
13	당신의 음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4	말을 할 때 평소 습관은	○			
15	당신의 대변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16-1	가슴이 두근거린다.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아프다.		체질변별력없음		
16-2	한숨을 잘 쉰다. 팔다리가 떨린다.		○	○	
16-3	건망증이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6-4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다. 다리에 힘이 없다.	○			○
17-1	가슴이 편다. 감기, 변비, 눈병, 설사, 갈증		○	○	
17-2	소화이상, 신경예민, 설사, 요통, 팔다리에 힘이 없다.		○	○	
17-3	변비, 건망증, 구역감, 코피		체질변별력없음		
17-4	요통, 하지무력, 목에 이상감각		체질변별력없음		
18-1	과묵한 편이다			○	○
18-2	매사에 신중하다			○	○
18-3	운동보다 오락을 좋아한다.		체질변별력없음		
18-4	밖의 일보다 집안 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시한다	○			
18-5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는 편이다		○	○	
18-6	고집이 센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18-7	인내심이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8-8	매사에 귀추를 본 뒤 자신에게 이로울 때 행동에 옮긴다			○	○
18-9	평소 점잖은 편이나 음흉한 면도 있다				○
18-10	교만하다		체질변별력없음		
18-11	욕심이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8-12	노력형이다		체질변별력없음		
18-13	이해와 타산을 많이 따진다		체질변별력없음		
19-1	사교적이다	○			
19-2	꼼꼼한 편이다		○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2)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3)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4)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표 3-2. 태음, 소음, 소양 그룹간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문항들

번호	설문내용	(1)	(2)	(3)	(4)
19-3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가 강한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19-4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	○
19-5	남성적인 면에 비하여 여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	○	
19-6	수줍음이 많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다		○	○	
19-7	판단력이 빠르다			○	○
19-8	생각하는 것이 조직적이다	체질변별력없음			
19-9	침착하다			○	○
19-10	한번 감정이 상하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	○	
19-11	남이 자기일에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체질변별력없음			
19-12	내성적이다	○			
19-13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20-1	매사에 열성적이다		○	○	
20-2	솔직담백하다			○	○
20-3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부족하다			○	○
20-4	외부일에 치중하여 나 자신과 가정에 소홀한 편이다			○	○
20-5	봉사정신이 많다			○	○
20-6	사무에 밝고 일처리가 신속하다			○	○
20-7	의협심이 강하다		○	○	
20-8	남의 잘 잘못을 따지기 좋아한다			○	○
20-9	성격이 급한 편이다			○	○
20-10	싫증을 잘 느끼고 체념을 잘한다	체질변별력없음			
20-11	사치를 좋아한다	체질변별력없음			
20-12	과장하기를 잘한다	체질변별력없음			
20-13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
21-1	모든 일에 거침없이 행동한다		○	○	
21-2	남을 공격하기를 잘한다			○	○
21-3	여성적인 면에 비하여 남성적인 면이 많다	○			
21-4	머리가 명석한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21-5	창의력이 있다			○	
21-6	적극적이다	○			
21-7	과단성이 있다			○	
21-8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체질변별력없음			
21-9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체질변별력없음			
21-10	계획성이 적다	체질변별력없음			
21-11	대답하지 못하다		○	○	
21-12	영웅심이 많다		○	○	
21-13	자존심이 강하다	체질변별력없음			
21-14	정직하고 충실한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2)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3)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4)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차이를 보이는 문항

IV. 考察 및 結論

최근 병증의 진단적 측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체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상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체질의 진단 자체가 진단하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체질 진단 결과의 주관성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체형기상이나 용모사기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진단기기를 이용한 연구, 손바닥의 지문을 통한 연구, 유전자 연구 등이 그것이며, 이들 연구의 단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체질 진단의 객관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기초적인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현재 임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지는 사상변증론 소고²⁰⁾에 이어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¹⁶⁾가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QSCC의 타당화연구²¹⁾,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²²⁾, 사상체질분류검사지(I)의 타당화연구¹⁷⁾ 등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I)중에서 문항정격도가 높은 문항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에 첨가하고 설문문항을 전문가와 같이 논의한 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를 개발하였다. 그 후 QSCCⅡ의 표준화 연구¹⁸⁾와 QSCCⅡ의 타당화 연구¹⁹⁾를 통하여 현재 임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지는 일차적인 체질의 변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중복된 질문의 삭제 및 문항수의 재조절 및 설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이번 연구를 착수한 것이다.

四象辨證內容設問調査紙(I)의 문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질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51 문항이었다. 이 중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문항번호 1, 2, 3, 4, 5, 6, 8, 10, 12, 14, 18-4, 19-1, 19-12, 21-3, 21-6 등의 15 문항이었다. 이 중 사지선다형의 1, 2, 4, 5, 8, 10은 그 각각의 세부항목에서 ①을 태음인 항목, ②를 소음인 항목, ③을 소양인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3의 ②는 음인의 항목 ③은 소양인 항목으로, 6의 ①은 태음인 항목 ②는

소음인 항목으로, 12의 ①은 태음인 항목으로, 14의 ②는 체질변별력이 없는 세부항목이었다. 18-4는 소음인 > 태음인 > 소양인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9-1은 소양인 > 태음인 > 소음인 순으로, 19-12는 소음인 > 태음인 > 소양인 순으로, 21-3은 태음인 > 소양인 > 소음인 순으로, 21-6은 소양인 > 태음인 > 소음인 순으로 각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문항번호 11, 13, 15, 16-2, 16-4, 17-1, 17-2, 18-5, 19-2, 19-5, 19-6, 19-10, 20-1, 20-7, 21-1, 21-11, 21-12 등의 17문항이었다. 이 중 11의 ②는 소음인, 소양인 모두 높게 응답하였으며, 13의 ②는 소음인 항목으로, 15의 ②는 소음인 항목으로 설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16-2, 16-4, 17-2, 19-2, 19-5, 19-6, 19-10, 21-11의 8개의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반면 나머지 17-1, 18-5, 20-1, 20-7, 21-1, 21-12의 6개의 문항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문항번호 9, 13, 15, 16-2, 17-1, 17-2, 18-1, 18-2, 18-5, 18-8, 19-4, 19-5, 19-6, 19-7, 19-9, 19-1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3, 21-1, 21-2, 21-5, 21-7, 21-11, 21-12 등의 32문항이었다. 이 중 13과 15의 두 문항에서는 ②에 응답하는 자가 소음인일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 16-2, 17-2, 18-1, 18-2, 18-8, 19-4, 19-5, 19-6, 19-9, 19-10, 21-11의 11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반면 나머지 18-5, 19-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0-13, 21-1, 21-2, 21-5, 21-7, 21-12의 17 문항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17-1에서는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일 확률이 높았으나 소양인의 응답에 특징은 없었다.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

는 문항은 문항번호 9, 11, 16-4, 18-1, 18-2, 18-8, 18-9, 19-4, 19-7, 19-9, 20-2, 20-3, 20-4, 20-5, 20-6, 20-8, 20-9, 20-13, 21-2 등의 19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1, 18-2, 18-8, 19-4, 19-9의 5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반면 나머지 16-4, 19-7, 20-2, 20-3, 20-4, 20-5, 20-6, 20-8, 20-9, 20-13, 21-2의 11문항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양인,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태음인일 확률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얻은 몇가지 지론은 다음과 같다.

1.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문항(25문항)은 삭제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설문지 문항을 간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가지 체질간에서 모두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15문항)은 설문지를 통한 체질진단시 기본적인 문항으로 먼저 선택되어질 수 있다(일차적 설문지).
3. 두 그룹간에서 유의성 있게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36문항)은 체질 진단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재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임상적 진단을 거쳐 체질이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성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설문지 체질 판정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문지로서 체질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參考文獻

1.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사, 137-142, 1986.
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19-128, 1997.
3. 高炳熙, 趙鏞珍, 崔昌錫 외 6인 : 四象體質別 頭面部的 形態學의 特徵, 사상의학회지 8(1), 101-186, 1996.
4. 許萬會, 宋正模, 金達來, 高炳熙 :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4(1), 107-148, 1992.
5. 洪錫喆, 이수경, 李義柱 외 5인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01-142, 1996.
6. 李義柱, 李載九, 金貞娟, 宋正模 :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43-160, 1998.
7. 洪錫喆, 이수경, 宋一炳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61-170, 1998.
8. 조동욱, 안선경, 김도균 외 5인 :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9(2), 163-173, 1997
9. 조동욱, 이창수, 고병희, 조황성 : 유전자 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8(2), 151-164, 1996
10. 梁基相 :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清學의 研究, 서울, 경희한의대논문집 6(1), 33-45, 1983.
11.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 EAV의 測定値와 四象體質類型 및 中風과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7(2), 59-88, 1995.
12. 한주석, 송일병 :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43-68, 1995.
13. 박성식, 최재영, 정민석 외 6인 : 四象體質類型과 指紋 손바닥紋의 關聯性에 對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0(1), 81-99, 1998.
14. 洪錫喆 :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體質別 脈狀과 脈診器에 의한 體質別 脈波의 比較, 大韓脈診學會紙 1(1), 79-100, 1995.
15. 朴性植, 朴恩慶, 崔載永 : 設問紙에 의한 四象體質 判定의 一致度 分析, 사상의학회지, 11(1), 103-117, 1999.
16.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辨證方法論 研究(제1보, 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1), 146-160, 1987.
17. 李義柱, 高炳熙, 宋一炳 :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7(2), 89-100, 1995.
18.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分類檢査紙

- (QSCCⅡ)의 標準化 研究, 사상학회지 8(1), 187-246, 1996.
19.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에 對한 妥當化 研究, 사상학회지 8(1), 247-294, 1996.
20.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에 對한 小考, 대한한학회지 6(1), 40-47, 1985.
21.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 研究, 사상학회지 5(1), 61-80, 1993.
22. 金達來: 設問紙를 이용한 體質鑑別方法의 信賴度에 關한 研究, 사상학회지 1994; 6(1): 89-94.